

■ 28일 입신(入神) 축하연 가진 본보 바둑해설위원 오규철 9단



## 광주 '바둑대부' 꿈★은 계속된다

바둑 기사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

프로 입단이 그 첫째요, 9단 승단이 두번째다. 그러나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입신(入神·9단)'은 글자 그대로 범부들에게는 평생 오르지 못할 '산'에 그칠 수 있다.

광주 '바둑대부' 오규철(54) 9단이 28일 광주 기우회원들과 동료 기사들이 마련한 입신 기념 축하연을 가졌다. 조 9단은 지난해 11월 9단으로 승단했다.

'조훈현(영암), 김인(강진), 이세돌(신안) 등 한국과 세계 바둑을 대표하는 기사들을 배출한 이 지역에 변변한 바둑대회 하나 없다는 게 뜻내 아쉽습니다.'

**34살 늦깎이 프로 입문...20년만의 잔치상**

쟁쟁한 후배들 제치고 올 바둑리그 본선행

오 9단은 34살 늦깎이로 프로에 입문(83년)한 뒤 20년 만에 가장 큰 잔치상을 받았지만 의외로 무겁게 입을 떴다. 지역에서 바둑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바둑돌을 잡은 데다 지역 기사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불과 2,3단 때 당대 '거합' 조훈현 9단과 패권을 떠웠다. 88년 원위진, 89년 패왕전 준우승이 그 결과다.

특히 그는 한국바둑 리그 예산에서 생활한 후배들을 제치고 리그 본선에 합류할 정도로 기복없는 실력과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이 따릅니다. 바둑리그 예산 출전도 그런 의지였습니다. 아쉽게도 고향 팀이 아닌 부산 파크랜드 소속으로 한국리그를 치르지만 최선을 다해 팀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34살에 프로에 입문한 그는 조훈현 9단과 혈통을 벌이면서



오 9단은 28일 본보와 인터뷰하는 내내 바둑들을 만졌다. 돌을 민지 않으면 이야기조차 풀어갈 수 없는 뜻 밀리는 바둑 인생이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현 9단과의 대국을 끝난다.

"함께 대국할 기사조차 없었던 광주 '촌놈'에게 불과 9살에 일본에서 유학할 정도로 단단한 내공을 쌓은 조씨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위전과 패왕전에서 조 9단에게 패한 뒤 빼를 깎는 바둑 공부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천재소년' 이세돌의 길리잡이였으며, 최근 한국 리그 예선전에서 헐리' 뿐이 9단을 꺾은 김지석 3단(17)과 신예 김수용 9단(16)을 길리낸 주인공이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세돌군(당시 6세)의 아버지가 부탁해 테스트 했는데 걸물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바둑을 가르칠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도 영재를 보면 가슴이 설립됩니다."

**이세돌 길리잡이... 지역대회 우승이 아쉬워**

**'흔신' 다하는 승부사... 태이를 훌더가 꿈**

'정글'이나 다른 없는 바둑판에서 20년 동안 싸워온 그의 승부철학은 '흔신'이다.

"대국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진정한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그가 후배기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을 리 없다.

"바둑이 직업이 됐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이 오직 바둑만 보는 데 개인 소양도 기르고, 폭넓은 대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둑 보급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의장을 고시하고 있는 오 9단의 목표는 우승이다. 그는 "이제 입신도 했고 거쳐야 할 관문을 다 지난 만큼 타이틀 흘려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꿈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마무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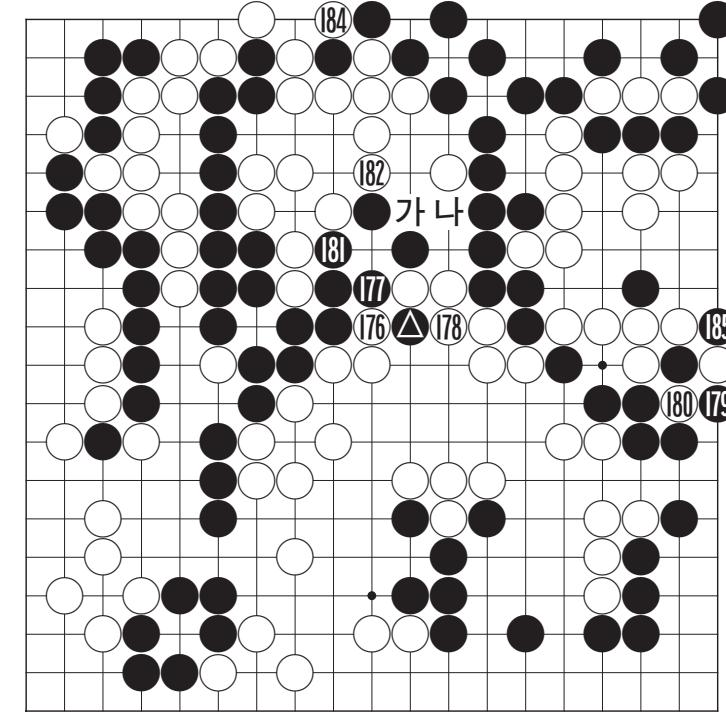
결승전 제 12보(176~185)

白 이창호 9단

<엠게임>

黑 조한승 8단

<타이젬>



신예기사들은 한번 손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말리기 어렵다. 조한승 8단이 전보에서 묵작을 두어 승기를 잡더니 계속해서 흑 ▲로 불여 이창호 9단을 물어 세우고 있다.

이 때 백이 178로 물려서면 안전하지만 전보에서 친명성을 입은 마당에 다시 선수 세 집을 당하면 가만히 앉아서 지게 된다. 그래서 176으로 일단 한 점을 잡고 버텨 봤으나 177에 둘이 놓아자 위쪽 백 대마의 사활이 문제가 되었다.

조 8단은 한 걸음 나아가 우변 179의 곳에 두어 폐로 버티고 나섰다. 그런 다음 땃값으로 181의 곳에 두어 상대의 눈을 없애가며 백 대마를 공격하고 있다. 백은 182로 밭을 수밖에 없다.

결국 흑이 183으로 우변 폐를 때내자 최하 양파가 되고 말았다. 오른쪽 패는 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백은 184로 대마를 살려 보더니 흑이 185로 우변을 때내자 견딜 수 없었는지 선선하게 돌을 던졌다.

조 8단의 빛나는 마무리 편지였던 것이다. 흑 183은 패 대뜸.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한·중·일 바둑 '기력' 대충돌

내달 1~3일 일본서 '亞비둑대항전'...한국 2연패 도전

한국이 아시아 바둑대항전 2연패에 나선다.  
한·중·일 대만 4개국이 출전하는 제5회 CSK  
배 아시아 바둑대항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베루(別府)에서 열린다.

한국은 1회 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

일본 기전인 이 대회에서 한국은 국내 투랑커  
인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고근태 4단 등 타이틀 훌더들이 출전한다.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도 호화진용으로 맞선다. 창하호 9단, 딩웨

이 8단, 구리 7단, 풍제 7단, 세허 6단 등 중국 대표기사들이다.

일본에서는 요다 노리모토 9단, 유기 9단, 다카오 신지 9단, 야마시타 게이고 9단, 고노리 8단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우공인증개사

☎ (0)52-8114-8011 ~ 8038  
(동원동 아이피프 사거리 코너)

용봉지구 그린상업용지

·유형주점 가능

·12m 도로접

·건축허가득(1층 위락시  
설 및 단단주점)

·120평 × 350만

용봉지구 그린상업지역

·12m × 8m 코너점

·120평 × 400만

장동동 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득, 남향

·전원주택, 식당,

창고 가능

·개발부담금 없음

·복개도로접, 대형차량

진입 가능

·10m 도로계획선에  
접함

·430평 × 65만

성공시대부동산

☎ (0)31-4449 (원) 010-8289-0549  
(성동구 사당동 헨리파이 사거리)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130평 평당 580만원

·195평 평당 760만원

·150평 평당 1400만원

·220평 평당 1350만원

수원지구 산설 30m 도로점

·700평 평당 230만원

·220평 평당 250만원

(주유소, 대형마트, 병원,

교회 적합)

운수동 매입주택 사거리

·810평 평당 145만

(고급상, 공업사 적합)

주유소 150평 추가매입  
가능

주유소 특급부지 금매

·365평 평당 235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 (0)2-261-8049 (원) 011-602-2223  
(구) 우신A 동문초등학교 앞 문앞)

토지매매

·청평동 풍수전기면적 1종  
주거 16평, 398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매매 가능 풍수전기면적 1종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대로변

42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원곡동 풍수전기면적 1종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대로변 42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신창동 풍수전기면적 1종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대로변 42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3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4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신창동 풍수전기면적 1종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대로변 44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5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6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7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8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49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0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1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2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3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4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5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6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7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8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59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60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

61평(전면부지, 지하1층부지, 지상2층부지)